

〈십자가의 신비〉, 김옥순 수녀작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 16,24-25)

[제1독서] 예레 20,7-9

[화답송] 시편 63(62),2,3-4,5-6,8-9
(◎ 2c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쁨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제2독서] 로마 12,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마태 16,21-27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

그때에 ²¹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²²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²³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²⁴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²⁵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²⁶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²⁷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그림 묵상

방향성

돌이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요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돌 자체로는 아무 죄나 잘못이 없지
하지만
함께 걷던 이가
갑자기 돌처럼
내 앞에 누워버린다면
그땐 문제가 되지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태 16,23)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복음 묵상

꿀벌의 천적인 말벌이 벌집을 습격하면, 일벌들은 도망을 가지만, 파수병 역할을 하는 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병 꿀벌에게는 ‘각오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각오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파수병 꿀벌처럼 정말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의 일은 없다고 하여도 크고 작은 희생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파수병 꿀벌들의 각오 유전자를 빌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오늘 복음에서는 오히려 이 각오 유전자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함구령을 내리신 뒤,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반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 믿는 이들의 버팀돌도 오히려 믿는 이들을 비틀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는 것을 망각한다면 쉽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를 밝혀 줍니다. 누군가의 발이 걸리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바오로의 권고를 각오 유전자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

Congratulations



2020 첫영성체 · 청소년 영세식 Wednesday, Aug 26



2020 첫 영성체 명단 The First Holy Communicants

변수빈 에스더(Esther)
 황예인 글라라(Clare)
 김진솔 베아트리지(Beatrice)
 김라일라 마리아나(Marianna)
 이윤아 세실리아(Cecilia)
 박서윤 프란체스카(Francesca)
 김태헌 데이빗(David)

쉬코 테리 아빌라의 데레사
 (Teresa of Avila)
 윤시연 스텔라(Stella)
 안준희 가밀라(Camilla)
 조유안 아멜리아(Amelia)
 최이안 안드레아(Andrew)

강준호 줄리안
 (Julian of St. Augustine)
 황대민 제노(Zeno)
 김하은 다니엘(Daniel)
 김현우 제임스(James)
 이도원 예로니모(Jerome)
 박은성 프란치스코(Francisco)

박필립 프란치스코(Francisco)
 조현우 비탈리아노(Vitaliano)
 박은성 프란치스코(Francisco)
 이재희 라파엘(Raphael)
 조우진 필립보(Philip)



2020 세례 성사 학생 명단 The Sacrament of Baptism

최이안 앤드루(Andrew)
 강준호 줄리안(Julian)
 윤시연 스텔라(Stella)
 조현우 비탈리아노(Vitaliano)
 김태헌 데이빗(David)



강두영 신부님의 축하 메시지

✝ 찬미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의 첫 영성체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새 신자가 된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3명의 어린이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모시는 큰 기쁨을 우리
 성 정 바오로 성당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 로사리아 선생님, 남 미카엘라 선생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감이신 윤정 보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든든히 뒷받침 해주신 주임신부님, 기꺼이 봉사해 주신 사도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과 청년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성가나 화려한 오르간 소리도 없이 그야말로 고요하게 봉헌된 이번 첫영성체 미사를
 집전하면서 아이들과 가족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사의 주인으로서
 거대한 바위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큰 은총으로 미사에 참례한 모든 이들을 떠받쳐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베풀어주시는 지극한 사랑이
 첫영성체 어린이 여러분과 가족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가득하시길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두영 암브로시오 보좌신부



Dear First Holy Communicant 2020,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for waiting patiently for the last 9 months, instead of 6 months to receive your First Holy Communion. I would like for you to also know, how very proud I am for your sincere efforts to complete all the required Catechism Curriculum for the Sacrament of the Holy Eucharist Class, when you were in a profoundly challenging circumstance, due to the Corona Virus.

I pray that you will become successful Christian Youth Apostles for life, where the Mysteries of Faith, Hope, and Love will shine through you toward everyone you may encounter from now on. Your unfathomable rich spirit, as one who became one with the Lord Jesus Christ, will serve happily, promote and promulgate the Truth around you and in the World.

Yes, you are now truly a Part of Christ's Body, and Christ's Beautiful Fragrance...
Yes, you will now Witness Jesus' Love in His Holy Eucharist, the Sacrament,
That Is The Heart of the Holy Church.

God Bless You and Keep You in His Presence Always...

Thank you Jesus...

Thank you Fr. Kang...

Thank you Parents...

Love and Prayer,

신월균 로사리아(*Rosaria*) 선생님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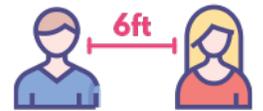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과 환기가 필요합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1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평일 미사 재개

- **평일 미사 시간**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유아세례 안내

-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2020-2021 주일학교 등록 안내

- **대상:** 유치부 - 12학년(K - 12th grade)
- **등록비:** 한 자녀/한 가정 \$50, 두 자녀/한 가정 \$90, 세 자녀 이상/한 가정 \$130
- **등록 방법:** **본당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Click Here)**
- **등록 기간:** 9월 6일까지
- **개학일:** **2020년 9월 13일, 오전 11시 30분**
- **수업 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수업 (상황 개선 시엔 대면 수업 예정)
- * 온라인 등록과 관련한 문의: 윤정 보일 CCD 교감
 (703)-371-3589 주일학교
 spc15.re.admyc@gmail.com

성소후원회 공지사항

본당 성소를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 그리고 후원금 모금

- 저희 본당에서도 2020년 가을학기부터 두 명의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 양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소후원회에서는 본당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해 교우 여러분들과 **미사 참여 (매달 둘째 주 금요일)**와 **묵주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한 후원회비와 후원금 모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오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성소 후원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연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산해 드립니다.)

▶ 온라인 봉헌 : 성당 홈페이지

봉헌하기 > 봉헌종류 - ‘성소후원’ 선택 > Pay Now

▶ 우편 봉헌 : 성당

체크 메모란에 ‘성소후원’ 명기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2주 주간: 예레 46-49, 야고 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8월 23일(연중 제21주일)

주일헌금	\$1,601.00
교무금	\$5,99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570.00
감사헌금	\$400.00
2차헌금	\$0
합계	\$11,56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9월 2일(수) 오전 6:15-6:45 | 9월 5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성서특강 ‘이집트문명으로 간 아브라함’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3일(목) 오후 5:00-6:00

9월 4일(금) 저녁 8:00-9:00

9월 6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변화와 도전 1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걸어서 만나는 신앙 진안 성지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고틀순(젼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수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 (다윗), 한양수 (스테파노)